

CHAPTER Ⅱ 공룡과 선사시대의 진주 이야기

Story1. 공룡시대의 진주

Story2. 선사시대의 진주 사람들

Story1. 공룡시대의 진주

Q 진주에서도 공룡화석이 발굴되었나요?

A 1억 년 전 중생대 백악기 시대에 진주에는 공룡들이 살았답니다. 진주시의 진성면 가진리와 내동면 유수리에서 수많은 새 발자국과 공룡화석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호탄동의 혁신도시 건설현장에서 공룡발자국 화석들이 발견되어 문화재로 등록되었답니다. 1억 년 전 진주는 공룡들의 놀이터였습니다. 우리 시의 이야기는 공룡시대부터 시작 됩니다.



진주의 공룡상상도

지금도 태고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된 남강에서
익룡과 공룡들이 놀았던 모습을 상상한 그림

1. 진주 내동면 유수리 백악기 화석 산지

Q 진주 유수리 백악기 화석산지는 어디에 있으며, 어떤 화석들이 발굴되었나요?

A 진주 유수리의 백악기 화석산지는 내동면 유수리 495번지 일대로 남강의 한 물줄기인 가화천 강바닥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화석들은 이미 채취가 되어 볼 수 없다는 점이 아쉽지만, 지금도 강바닥으로 내려가 주변을 살펴보노라면 1억 년 전의 공룡시대에서 있는 듯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느낌이 새롭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공룡뼈 화석조각이 발견된 곳으로 공룡의 서식환경과 화석화 과정 연구에 있어 보존가치가 인정 되어 천연기념물(제390호, 1997년 12월 30일)로 지정된 곳입니다.



유수리 백악기 화석이 발견된 가화천 전경



유수리 백악기 화석산지의 그루터

이곳 가화천 강바닥 일대는 약 1억 년 전 물과 바람 등에 의해 돌이 쌓여 길이 2㎞, 넓이 150m의 넓은 화석산지가 된 것입니다. 공룡의 지골화석과 발가락 뼈, 좌골화석 등 100여 점에 달하는 공룡뼈 화석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오래된 토양층이나 나무그루터기 화석과 숯, 그리고 각종 과거 생물의 생활흔적 화석 등 종류도 매우 다양하여, 공룡의 서식환경과 화석화 과정 연구에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로 인정받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하고 있습니다.



유수리 백악기 화석 산지에서 발굴된 용각류의 지골(상완골)

또한 공룡이 서식하였음을 알려주는 2개의 공룡 화석층이 발견되어 국내 최초로 용각류의 지골, 새끼 공룡의 좌골화석과, 종류 미상의 두개골화석 2점, 장골편 등 147점의 고화석편이 발굴되었습니다. 여기서 '지골(肢骨)'이란 발가락뼈를 총칭하는 말로서 상완골이라고도 합니다.

이곳에서는 공룡 화석층의 특성, 공룡의 서식 및 화석화 환경과 그 과정을 상세히 볼 수 있어 국내 고환경 지질사의 귀중한 자료로 학술적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2. 진주 가진리 새 발자국과 공룡 화석산지

Q 진주 가진리 새 발자국과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또 어디에 가면 볼 수 있나요?

A 백악기 시대의 물떼새와 공룡, 익룡의 발자국이 혼합해 발견된 곳으로 세계적으로 희귀한 사례입니다. 특히 익룡 발자국은 길이 200mm, 너비 154mm의 크기나 되는 것이 발굴되었는데, 이 정도 크기의 발자국이라면 양 날개의 길이는 무려 20m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곳은 환경연구, 중생대 조류연구 및 지질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경남과학교육원의 화석문화재 전시관에 가면 이외에도 많은 화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진주 가진리 새 발자국과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는 중생대 백악기시대 최대의 철새 도래지였으며 공룡과 익룡 등이 함께 살았던 곳입니다.



경남과학교육원 화석 문화재 전시관 내부전경

화석이 발견된 지역은 원래 해발 55m 정도의 구릉지였는데 1996년 경남과학교육원 신축공사를 위해 약 35m까지 땅을 파 내려가다가 돌 속에서 화석이 발견된 것입니다.

발굴 결과 5개 지역에서 도요물떼 새발자국 2,500개, 공룡발자국 80개, 익룡발자국 20개, 30×40㎝ 크기의 새발자국 화석 365개가 수집되었습니다. 또한 땅의 겉 표면이 말라 거북이 등처럼 갈라 터진 모양 및 물결자국 등도 발견되었습니다. 자연박물관처럼 꾸며진 화석문화재 전시관에는 동일 공간에서 조류 및 공룡발자국화석이 발굴 당시 모습으로 잘 보존되어 있어 1억 년 전 당시의 생태계를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8개의 다리가 보이는 거미화석, 어류의 비늘화석, 물고기 뼈화석 등 백악기시대의 화석 140여종을 기증 받아 볼거리가 더욱 풍부해졌습니다.



가진리 새 발자국 화석



가진리 물결무늬 화석



가진리 공룡발자국 화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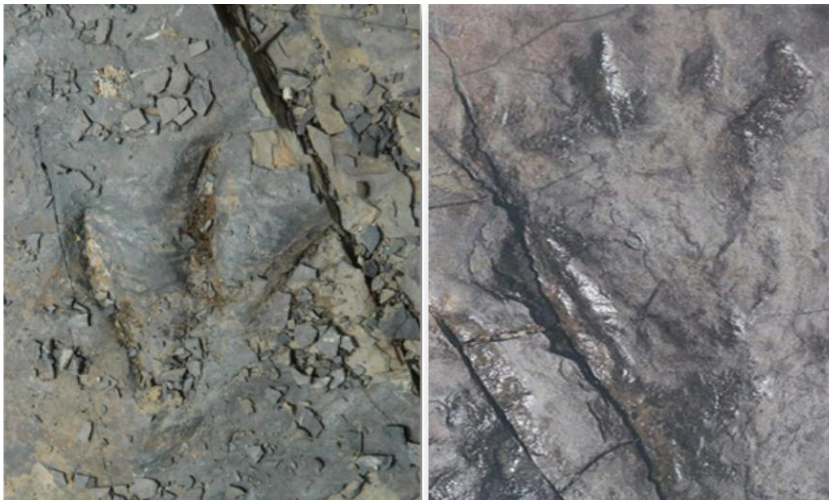
3. 호탄동 익룡·새·공룡 발자국 화석 산지

Q 진주에서 2011년 공룡발자국 화석이 발견되었다죠?

A 2011년 8월 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현장에서 중생대 백악기의 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되면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익룡 발자국 화석 545개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물갈퀴 새를 포함해 새 발자국 화석 642개, 육식 공룡인 수각류의 발자국 화석 67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익룡 발자국은 숫자와 밀집도 면에서 국내 최대로 평가되며, 좁은 장소에서 익룡 발자국 화석들이 다수 발견되는 경우가 세계적으로 매우 드물어 학술적 가치와 그 중요성이 매우 높은 화석 산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이곳을 「진주 호탄동 익룡·새·공룡 발자국 화석 산지」로 명명하고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34호로 지정하면서 진주는 공룡 화석산지로도 주목받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호탄동 혁신도시 건설 사업장에서 발굴된
새 발자국 화석(왼쪽)과 익룡 발자국 화석(오른쪽)

Story2. 선사시대의 진주 사람들

1. 선사시대의 유적지

Q 진주 대평의 선사유적지는 어떻게 발견되었나요?

A 옛날 진주시의 대평면은 아름다운 남강 변에 펼쳐진 큰 들판이라는 뜻의 '한들'로 불렸습니다. 이곳에는 '도깨비 바윗돌'이라 불리는 큰 바위돌이 여러 곳에 있었는데 1953년 경지정리 사업을 펼치던 중에 고인돌로 확인되면서 이곳이 선사시대 유적지라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아쉬운 것은 이미 수많은 유적들이 파괴되고 훼손되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1967년에 그 중요성이 알려지게 된 이래, 1975년부터 약 5년간의 지표조사를 시작으로 95년부터 16개 기관이 참가하는 대규모 발굴이 이루어졌습니다. 발굴지역은 대평, 상촌, 귀곡, 옥방, 묵곡리 등 181만여㎡에 이릅니다.



목책이 둘러진 진주 남강 선사유적 주거지 형상 모형

수차례의 발굴 결과 대평면 남강 변 일대에서 400동이 넘는 집터와 4천㎡가 넘는 밭이 발견되었습니다. 6곳의 깊게 파인 1~2줄의 환호와 환호 내부에 둘러진 튼튼한 목책, 옥과 석기를 만드는 공방의 흔적 등이 발굴되면서 국내 최대의 선사시대 유적지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특히 발굴된 유골 중에는 머리가 잘려 없거나, 화살촉과 함께 있는 것이 출토되었고 마을주변에 커다란 환호를 파고 목책을 세웠던 것으로 보아, 2500년 전 진주 사람들은 한창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곳을 배경으로 KBS 역사스페셜에서는 '2500년 전 한반도는 전쟁 중이었다'는 주제로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은 총 1만2,573점으로 21개 기관에서 분산 보관하고 있으며 진주시에서는 유물이 발굴되었던 대평면 남강 변에 청동기문화박물관을 건립하여 당시의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Q 환호는 어떤 것인가요?

A 환호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마을 주변에 땅을 파서 만든 도랑을 말합니다. 위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집 주위로 둥그렇게 땅을 파서 환호를 만들었으며, 나무를 세워서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Q 선사시대에 진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나요?

A 청동기시대 대평 마을에서는 다양한 곡물을 재배했으며, 돼지도 길렀답니다. 물론 남강에서 물고기를 잡고 숲에서 짐승을 사냥하기도 했겠지요. 우리나라는 삼한시대까지 돼지보다는 사슴이 훨씬 더 많이 유적에서 출토되었다고 합니다. 진주 선사시대 유적에서 출토되는 자료를 보면 그 시대에는 가축을 기르기보다 사냥을 더 많이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용한 그릇은 무늬가 없는 무문토기로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토기와 비교가 됩니다. 대표적인 무기는 석검과 활, 창 등이었습니다. 지배층들은 권위와 권력의 상징인 옥을 장신구로 썼으며 남강을 따라 교역이 성행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Q 청동기시대 진주의 옥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은데요?

A 청동기시대 옥을 가공하는 방법은 간석기를 만드는 방법과 거의 같습니다. 원석에서 필요한 크기만큼 떼어내 원하는 모양으로 갈아 만듭니다. 옥을 가는 숫돌을 옥마석이라고 부르는데, 대평에서는 다양한 옥마석이 많이 발굴되었습니다.

Q 진주 사람들이 만든 옥이 유명했다면서요?

A 대평은 남강 변에 자리했던 마을 중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대평 마을이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대평 마을이 옥 가공품을 생산하였기 때문입니다. 옥은 지금도 귀하지만 청동기 시대에는 아주 귀했습니다. 당시 옥은 권위와 권력의 상징으로 옥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할 정도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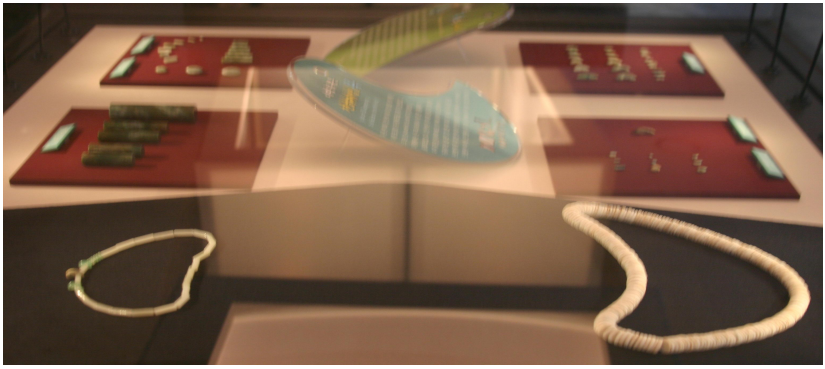
진주 남강 선사 유적의 목책과 환호 모형

대평리 유적에는 청동기 시대 공방도 발견되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돌이나 옥을 갈고 다듬는데 사용한 도구와 돌가루, 미완성 석기와 옥 제품 등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옥은 대평의 특산물이었고 근래까지 옥이 유명했습니다. 이 근처에는 옥과 관련된 곳이 많은데 대평 옥방, 산청 옥산, 하동 옥종, 옥산 등의 지명이 있습니다.

Q 어떤 옥을 만들었나요?

A 청동기시대 옥 가공품은 주로 벽옥과 천하석으로 만들었습니다. 벽옥은 대롱모양으로 많이 만들었고 크기는 0.4mm에서 12cm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천하석은 아마존스톤이라고도 불리며 아주 맑은 청록색입니다. 옥 장신구는 굽은 모양, 둥근 모양, 반원모양 등 다양합니다.

남해안 연안의 청동기 시대 무덤 곳곳에서 대평의 옥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대평의 옥이 남해안 곳곳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서로 옥 교역이 활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옥 장신구를 구하기 위하여 특산물이나 생필품을 배에 싣고 남강을 따라 대평 마을로 전국 각지의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진주 남강 선사 유적지에서 발굴된 옥 장신구

2. 진주 청동기문화 박물관

Q 진주 청동기문화 박물관은 어떤 곳인가요 ?

A 진주시 대평면 대평리에는 진주 청동기문화 박물관이 있습니다. 진주 팔경 중의 하나인 진양호 호반 길을 따라 대평 방향으로 가다보면 호수가에 진주 청동기 문화 박물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평이라는 말, 그대로 넓은 들판이라는 뜻으로 옛날에는 무 특산지로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쳤던 곳입니다. 진주 청동기문화 박물관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환호마을이 발굴된 대평리 옥방 1지구 유적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1층의 입체영상방은 48석의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박물관에서 직접 제작한 3D 입체영화 '청동기 시대 대평의 꿈 남강의 힘'이 상영됩니다.



진주 청동기문화 박물관

영화에 등장하는 대평 마을 족장은 옥목걸이를 하고 사천지역의 이금마을 족장은 조개목걸이를 하고 등장하는데, 이 곳에서 출토된 유물을 그대로 영상화 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바닷가 사람들과 교역은 물론 전쟁도 이루어졌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외전시장에는 청동기 시대에 지었다는 움집과 다락 창고 무덤 등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움집 안에는 각 시대별로 생활 모습을 그대로 꾸며 놓았고 청동기 시대의 목책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설전시장에는 토기류 150여점과 석기류 250여점, 옥 50여점 등 약 500여점의 출토된 진품 유물이 중심이 되어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 야외전시장에는 옥방지구 발굴을 근거로 복원된 대평 마을 축소모형과 학계의 자문과 고증을 거친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움집 3동, 다락창고, 목책, 무덤군과 밭 유적 등을 전시하여 당시 생활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진주 청동기 문화 박물관의 야외 전시장